

#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영희<sup>1</sup>, 고태순<sup>2\*</sup>

<sup>1</sup>대진대학교 아동학과, <sup>2</sup>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 Influenc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eer Relationships

Young-Hee Kim<sup>1</sup>, Tae-Soon Koh<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hild Studies, Daeji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심리적 안녕감, 정서표현성,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와 함께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 391명으로, 수집된 자료를 t 검정과 Pearson의 상관분석 및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 및 교우관계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는데 모든 변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 및 교우관계는 서로 상관이 있었으며,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eer relationships according to sex,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91 second grade students at a middle schools located in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eer relationships according to sex. Female students had higher levels in all variables than male student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eer relationships. In addi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negative expressiveness in the sub-factor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peer relationships. These findings provide suggestions regarding the plan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ships.

**Key Words** : Emotional Expressiveness, Middle School Students, Peer Relationships, Psychological Well-being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발달한다. 청소년기는 그간 의존해왔던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심리적 이유(psychological weaning)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가는 시기로 청소년기 동안

친구와의 관계는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Sullivan은 인간발달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매 발달단계마다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의미 있는 존재는 친구라고 하였다[1]. 애착 대상이 부모에게서 또래 관계로 이동하면서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솔직하게 털어놓고

\*Corresponding Author : Tae-Soon Koh(Shinhan Univ.)

Tel: +82-31-870-0412 email: kts@shinhan.ac.kr

Received September 5, 2014

Revised (1st October 6, 2014, 2nd October 9, 2014)

Accepted October 10, 2014

친구를 통해 동반자, 자기 확신,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한다[2].

인간발달과정에서 또래들과 가지게 되는 인간관계의 의미하는 교우관계는 정서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우관계의 발전을 통해 청소년은 가족과의 심리적 결속에서 벗어나 독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성격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깝게 사귀는 관계로써 청소년은 교우관계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개방한다. 서로 이해하며 지지하는 관계로 사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관계가 교우관계다.

따라서 청소년의 교우관계가 만족스럽고 효과적일 때 관계의 경험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하게 되지만, 교우관계가 불만스럽고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교우관계가 학교적응 및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4],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교우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유지·발전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에서의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청소년들의 교우관계와 관련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교우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 개인 내적 변인은 심리적 안녕감이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심리적으로 완전히 기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를 의미한다[6]. 최근 심리학에서는 삶의 긍정적 영역에서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데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은 심리학이 인간 행동에서 나쁜 측면들을 연구하고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인간 행동의 좋은 점을 더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연구되어 왔다. 그에 따르면 행복이란 즐거운 삶(pleasant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 몰입하는 삶(engagement life)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의미 있는 삶이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과 상당히 유사

한 개념이라 하겠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교우관계와의 관계를 연구한 김기형[7]은 심리적 안녕감과 교우관계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관련하여 류중성[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와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는데 역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수행되었으나, 심리적 안녕감과 교우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교우관계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유의한 설명변인으로[9], 심리적 안녕감과 교우관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노력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함께 교우관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변인은 정서표현성이다. 정서표현성(emotional expressiveness)은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는 정서의 처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서표현성은 원만한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10]. 즉 정서표현성은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영진[11]은 정서표현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표현갈등과 대인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서표현성은 교우관계와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은 중학생의 교우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인들과 교우관계와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변인이 교우관계와 더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은 개인 내적 특성으로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이 실제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은 중학생의 교우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 그리고 교우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교우관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우관계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12,13], 최근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교우관계 및 또래 애착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정서표현성, 교우관계에서의 성차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중학생의 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2 연구문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 및 교우관계에서 성차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 및 교우관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410명으로, 연구 초기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분석결과, 불성실한 응답이라 판단되는 19개의 자료를 제외한 39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은 177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45.2%였으며 여학생은 214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54.6%였다. 연구대상자인 중학생 본인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98명인 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6명으로 16.8%, 아주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명으로 1%로 나

타났다. 그 외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2명으로 5.6%, 아주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명으로 0.3%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107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의 27.3%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24명으로 57.1%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연구대상 학생 중 55명으로 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 2.2 측정도구

### 2.2.1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Argyle과 Martin 그리고 Crossland (1989)가 제작한 옥스퍼드 행복 측정지(OHI : Oxford Happiness Inventory)를 토대로 Hills와 Argyle(2002)이 심리적 안녕감의 단축형 척도로 제시한 것이다[15,16]. 원래는 6점 평정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평정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77이었다.

### 2.2.2 정서표현성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King과 Emmons(1990)가 제작하고 하정(1997)이 번안한 정서표현 질문지(EEQ :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이다[17,18]. 실제 표현 행동에 초점을 두고 정서표현성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원래는 7점 척도였으나 반응하기 쉽도록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친밀한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표현성 전체 신뢰도는 .71이었다.

### 2.2.3 교우관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교우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유윤희(1995)의 학교적응력 척도다[19]. 학교적응력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교수업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교우관계를 측정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81이었다.

###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수와 연구대상 학생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학교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분석을 위해서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자료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서표현성, 교우관계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서표현성, 교우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 $t=-2.454, p<.05$ )과 정서표현성( $t=-4.934, p<.001$ ) 및 교우관계( $t=-3.561, p<.001$ )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 및 교우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이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der differenc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expressiveness, peer relationships (N=391)

Variable	Category	M	SD	t(p)
Psychological Well-being	Male	25.24	5.06	-2.454
	Female	26.42	4.43	(.015)
intimate Expressiveness	Male	11.14	2.87	-3.77
	Female	12.27	3.03	(.000)
negative Expressiveness	Male	9.36	2.06	-4.16
	Female	10.29	2.28	(.000)
positive Expressiveness	Male	20.13	3.79	-3.79
	Female	21.58	3.77	(.000)
Emotional Expressiveness total	Male	43.39	6.94	-4.934
	Female	46.89	6.93	(.000)
Peer Relationships	Male	16.66	3.44	-3.561
	Female	17.91	3.46	(.000)

### 3.2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서표현성, 교우관계의 상관관계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서표현성, 교우관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 $r=.338, p<.001$ ), 심리적 안녕감과 교우관계( $r=.470, r<.001$ ), 정서표현성과 교우관계( $r=.501, p<.001$ )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s among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expressiveness, peer relationships (N=391)

	1	2	3	4	5	6
1	1					
2	.163 (.001)	1				
3	.344 (.000)	.365 (.000)	1			
4	.235 (.000)	.410 (.000)	.350 (.000)	1		
5	.338 (.000)	.750 (.000)	.810 (.000)	.681 (.000)	1	
6	.470 (.000)	.304 (.000)	.465 (.000)	.364 (.000)	.501 (.000)	1

1. psychological well-being, 2. intimate expressiveness, 3. negative expressiveness, 4. positive expressiveness, 5. emotional expressiveness total, 6. peer relationships

### 3.3 중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의 영향

중학생의 교우관계에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교우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의 하위 요인인 친밀한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긍정적 정서표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peer relationships. (N=391)

Model	Variable	B	S.E	$\beta(p)$	Adj R <sup>2</sup>	F(p)
1	constant	8.412	.872		.219	108.679 (.000)
	psychological well-being	.345	.033	.470 (.000)		
2	constant	4.186	.981		.321	92.089 (.000)
	psychological well-being	.258	.033	.351 (.000)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310	.040	.344 (.000)		
3	constant	2.791	1.012		.351	70.537 (.000)
	psychological well-being	.239	.032	.325 (.006)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257	.041	.285 (.000)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304	.070	.192 (.000)		

먼저,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값(Tolerance)과 분산팽창지수(VIF)를 구한 결과 각각 .805~.881, 1.135~1.162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 분석에서 심리적 안녕감( $\beta=.470$ ,  $p<.001$ )이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8.679$ ,  $p<.001$ ). 2단계 분석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beta=.351$ ,  $p<.001$ )과 긍정적 정서적 정서표현( $\beta=.344$ ,  $p<.001$ )이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92.089$ ,  $p<.001$ ). 3단계 분석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beta=.325$ ,  $p<.01$ )과 긍정적 정서적 정서표현( $\beta=.285$ ,  $p<.001$ ) 및 부정적 정서표현( $\beta=.192$ ,  $p<.001$ )이 교우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70.537$ ,  $p<.001$ ).

중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력은 22%로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추가 투입되었을 때 각각 10%와 3%의 추가 설명력을 나타내어 이들 요인들의 교우관계에 대한 총 설명력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 및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먼저, 심리적 안녕감, 정서 표현성, 교우관계에서 성차가 있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았으며, 이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이 중학생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과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결과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서표현성, 교우관계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정서표현성, 교우관계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서의 성차를 연구한 이소현의 연구[20]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에서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선미와 박경[21]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가 보다 평등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학생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서표현성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적 능력이 높다는 임인섭[2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또래들과의 놀이에서의 성차가 정서적 기능에서의 성차의 사회와를 설명한다고 한 Hall[23]의 제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학생의 놀이는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남학생의 놀이는 지위-지향적인(status-oriented)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여학생들은 개인적 욕구대신 친밀함과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남학생들은 경쟁이나 자기 고양(self-promotion)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놀이에서의 이러한 서로 다른 상호작용이 서로 다른 정서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궁극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서표현 기술을 더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정서표현에서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24]와 중학생에서는 성차가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정서표현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더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우관계에서도 여학생의 교우관계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의 교우관계가 여학생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 전우경[25]의 연구와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나 여학생의 교우관계가 남학생에 비해 높다는 강금주, 윤숙영, 신현숙[26]의 연구와는 일관된 결과다. 신효식과 이선정[27]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또래지지를 많이 받는 이유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구관계에서 보다 정서적인 부분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표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우관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정서표현성이 교우관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연구문제 2의 결과, 심리적 안녕감 및 정서표현성은 교우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 및 정서표현성은 교우관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고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이 대인관계와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7,10].

연구문제 3을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안녕감 및 정서표현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이 교우관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었다.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검토한 본 연구에서 교우관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설명변인은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나기은과 은혁기에 따르면[28], 심리적 안녕감은 또래관계에 직접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얻는 것은 교우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주요한 예측변인임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과 함께 교우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이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혜리[29]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표현은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역상관이 있다고 한다. 이는 긍정적 정서표현이 교우관계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예측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천부경[30]에 따르면 정서표현성이 명확할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다고 한다. 긍정적 정서표현 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표현 또한 교우관계를 설명하는 유의한 설명변인이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표현하는 능력이 교우관계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 및 교우관계에서 성차가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차에 따른 중학생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더 수행될 필요가 있다. 성차를 고려하여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이 교우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교우

관계를 설명하는 유의한 설명변인이었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 교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을 증진시키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31],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32] 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정서표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33]들이 수행되었다. 중학생의 교우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확장될 필요가 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 변인을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표현성의 두 가지를 들었지만 연구결과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이 35%인 것을 고려하면, 교우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H. S. Sulliva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1953. In D. R. Shaffer", *Developmental Psychology*, pp.610-613, Wadsworth, 2002.
- [2] J. S. Back, H. W. Kim, Y. S. Kim, Y. R. Bang, H. T. Lim, Y. A. Yu, "Counseling adolescents", pp.431-432, Shinjung publishers, 2009.
- [3]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ictionary of education", Howdongseal publishers, 1995.
- [4] H. J. Kim,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 qualit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3.
- [5] M. E. P. Selligman,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 fulfillment", pp.1-3, Simon & Schuster Inc, 2002.
- [6] C. C. Ryff, Happiness in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6, pp.1069-1081, 1989.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7.6.1069>
- [7] K. H. Kim, "Relationships of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family relationship,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6.
- [8] J. S. Ryu, "Sens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par-

- participants sport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endency", Unpublished MS Thesis, Jeonju University, 2013.
- [9] E. S. Moon,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2.
- [10] H. S. Sim, J. H. Wang,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3, No. 1, pp.163-175, 2011.
- [11] Y. J. Byun, "The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interpersonal relations", Unpublished M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5.
- [12] K. J. Kang, S. Y. Yun, H. S. Shin, "Influence of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al Research*, Vol. 35, pp1-24, 2012.
- [13] S. H. Lee, "The relations between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adolescents", Unpublished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5.
- [14] W. K. Jeo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ego-resiliency on peer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S Thesis, Hannam University, 2013.
- [15] M. Argyle, M. Martin, J. Crossland, "Happiness as a function and social encounters". In J. P. Forga, J. M. Innes(Eds.). Recent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s(pp.189-203). North-Holland : Elsevier, 1989.
- [16] M. Hills, M. Argyle,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3, pp.1073-1082, 2002.  
DOI: [http://dx.doi.org/10.1016/S0191-8869\(01\)00213-6](http://dx.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 [17] L. A. King, R. A. Emmons,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pp.752-762,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8.5.864>
- [18] J. Ha. "The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on depression : Integrative study on human'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Unpublished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7.
- [19] Y. H. Yu,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of school adjustment, anxiety, academic achievement : focusing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S Thesis, Korea University, 1995.
- [20] S. H. Le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cell-phone addi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12.
- [21] S. M. Yang, K. Park, The effects of narcissistic tendency 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Youth Research*, 18(12), 79-100, 2011.
- [22] I. S. Im, "Sex difference and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ing, emotionality, and externalized behavi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2012.
- [23] J. A. Hall. On explaining gender differences : The case of nonverbal communication,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 pp.177-200, 1987.
- [24] U. S. Choi, H. J. Bang,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of children,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and social abili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 Vol. 23, No. 4, pp.91-110, 2010.
- [25] W. K. Jeo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ego-resiliency on peer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S Thesis, Hannam University, 2013.
- [26] K. J. Kang, S. Y. Yun, H. S. Shin, Influence of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5, pp.1-24, 2012.
- [27] H. S. Shin, S. J. Lee, The effect of microsystem and self-knowledge variables on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6, No. 4, pp.105-133, 2012.
- [28] K. E. Na, H. G. Eu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peer relationship and stress, *The Journal of Korean Elementary Education*, Vol 25, No. 1, pp.75-91, 2014.
- [29] H. L.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positive emotions on the relation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3.
- [30] B. K. Cheon, "Interpersonal ability,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 Comparison of cluster by affect intensity, emotional attention and clar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style", Unpublished MS Thesis, Gyeongsang Natioanl University, 2012.
- [31] M. Y. Seo, "Effect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enhancement program combined with mindfulness meditation for middle school girls", Unpublished M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 [32] Y. J. Seo, H. S. Shin, Effects of the optimism enhance-

- ment program on middle school girls' dispositional optimism,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3), 295-313, 2010.
- [33] E. S. Choi, "The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improvement program",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김 영 희(Young-Hee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 복지학과 (이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대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심리, 아동상담, 놀이지도

---

고 태 순(Tae-Soon Koh)

[정회원]



- 200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철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심리, 유아교육, 놀이